

결핵상담실

상담. 김은배(중앙지회 복십자의원 원장)

Q 저의 병명은 결핵성 흉막염입니다. 전염성은 없다는데 6개월간 결핵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현재 승선예비역제도로 인하여 배를 타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검 1급을 받고 현재 항해사로 일하고 있으나 결핵으로 인하여 치료 중입니다. 결핵에 걸리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네요. 저는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폐결핵이나 결핵성 흉막염의 경우 조치료로써 완치되면 일반적으로 군복무 대상이 됩니다. 다만 후유병변이 아주 많이 남아 있어서 호흡곤란이 심하거나, 치료가 잘 안 되어 다제내성 폐결핵으로 확인될 경우 등은 면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면제기준은 병무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2009년 1월 결핵판정을 받고 같은 해 7월까지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 다. 다른 부분에서 부작용은 없었고 특별히 복용시 거부감도 없었고요. 하지만 피부 발진/여드름이 아주 심해서 1년 이상 고생하다가 겨우 피부상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직장건강 검진차 받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폐결핵 의증'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결혼을 했고 임신을 계획하는 중에 아직 확진은 아니지만 또 의심이라고 하니 너무 걱정이 됩니 다. 완치 판정받고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인데, 또 재발했을 확률이 있나요?

A 폐결핵 조치료의 경우 치료를 잘 받았으면 2년 이내 재발할 가능성이 낮고(대개 2~4%정도로 보고됨) 또한 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치료 받았던 병원에 가서 객담 검사와 함께 과거 흉부 X-선 사진과 비교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객담검사 시 객담통을 3개 주는데, 하루에 한 개씩 객담을 받고, 기상하자마자 받아야 되는 건가요? 보관은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휴지로 싸서 냉장 보관해야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모든 검사결과(간기능검사, 시력 등)가 나온 후에 약 처방을 하게 되는지요?

A 객담 결핵균 검사를 위해 객담검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객담은 병원에서 바로 받아서 제출하고 두세 번째 객담은 집에서 아침식사 전에 나오는 객담을 받아서 매일 제출하

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보관할 경우 냉장실에 두어도 되지만 가급적 2~3일 내로 갖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증이 심할 경우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결핵 약을 바로 투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약 부작용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대개는 검사상 이상없음을 확인한 후 투여하게 됩니다.

Q 이제 백일이 조금 안된 아이의 쇠골 안쪽에 혹이 2개가 났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비시지를 맞고 난 후 부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검사 CT, 뇌척수 검사 등등 많이 했습니다. 검사 결과 결핵 약을 9개월 먹고 난 후에 수술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전화를 해보니 약을 먹이지 말라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A 비시지에 의한 부작용으로서 단순 임파절염이면 경과를 관찰하고, 화농성 임파절염이 생기면 농을 배액하면서 2차 감염 시에는 항생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비시지 부작용에 의한 임파절염이나 농양의 경우에는 결핵 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으므로 보건소와 상의하여 처치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제가 작년 11월 12일부터 1차약 4종을 먹다가 간수치가 올라가서 12월 28일부터 약을 중단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모든 결핵약을 2주 중단하고 그동안 간과 관련된 약 1개만 먹이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2주 동안이나 결핵약을 완전히 끊었을 때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인터넷 검색결과 간에 부작용이 없는 약 1~2종을 계속 먹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 또 약을 중단한 사이에 전염성이 생겨 가족 등에게 전염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A 폐결핵 치료 도중 간기능 이상(간염)이 발생되면 그 정도에 따라 약 용량을 감량하면서 경과를 보기도 하고, 일단 결핵약을 중단한 후 간기능이 호전되면 다시 처방을 조정하여 결핵 치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물론 장기간 복용을 못할 경우 객담에 다시 배균될 수도 있으므로 담당의사의 지시대로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간장해가 비교적 덜한 약제 3~4가지(주사제 포함) 정도를 쓰면서 간기능을 관찰하기도 하지만, 이는 결핵이나 간기능 이상의 정도에 따라 담당의사가 결정할 부분입니다. †